벌꿀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된다.

- 양봉협회,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
- 2017년까지 총 1,800억원 지원
- 안정적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 기대

농업종합자금이 개정됨에 따라 벌꿀 가공업체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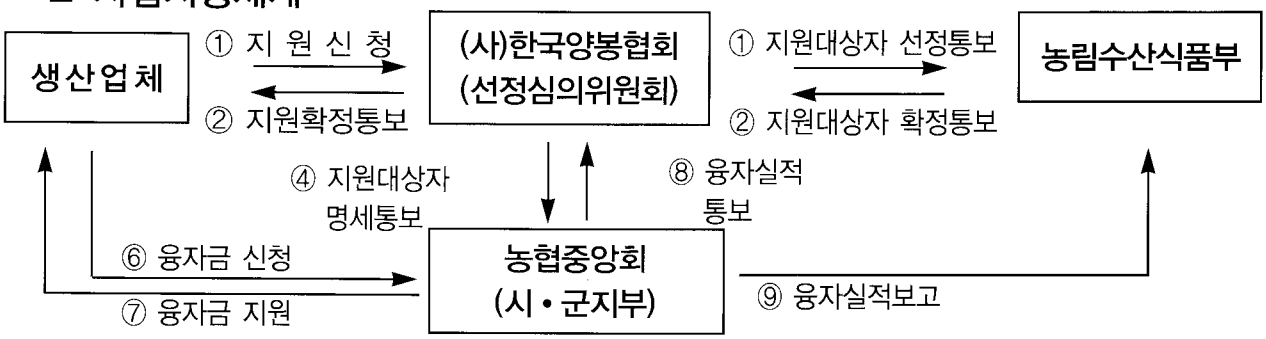
한국양봉협회는 최근 채밀기의 기후변화에 따른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여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봉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종합자금 예외 규정에 '벌꿀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천800억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심사와 평가, 선정은 한국양봉협회에서 주관하며 협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역별 농협 각 시군지부에서 연 3.0~4.0%(2년 이내 상환)의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올해 사업량은 총 20개소, 200억(융자)으로 개소당 1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단, 필요시 초과 가능) 자금 지원 기간은 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수매자금 지원은 일시적 생산과 집중 수매에 따른 농가 판매 및 수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라며 "하지만 금년 흉작으로 그 빛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양봉

□ 사업시행체계



농림식품부 29개 대표품목 조직 육성 워크숍 개최

- 양봉협회, 대표조직 육성위해 고품질 및 기능성 제품 생산
- 밀원수 식재로 장기적인 산업발전 도모해야

양봉산업의 생산, 유통에 있어 핵심과제는 '고품질 벌꿀 생산 확대'와 '기능성 제품 개발 확대', '사양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표조직 육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대표조직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농축수산물 29개 품목 대표조직 육성촉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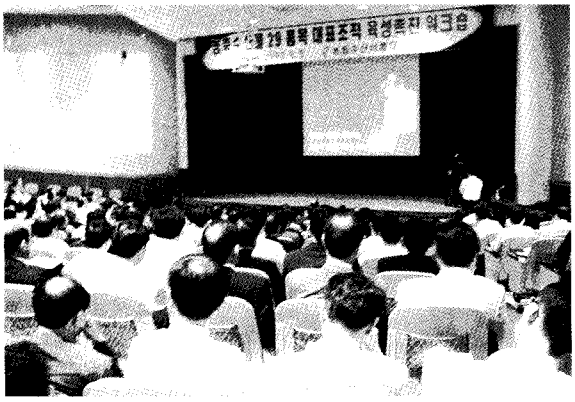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서는 밀원 부족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벌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해결방안으로 밀원수 식재보급 확대 및 묘목을 다양화하고 꿀벌 우수종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학연이 연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보조식품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소비촉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양꿀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 자율적으로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신뢰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 대표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한국양봉협회'를 대표조직으로 육성, 임의자조금 도입을 위해 (가칭)한국양봉자조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임의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09년도 임의자조금 거출 목표를 4억원으로 하여 다양한 소비홍보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봉**



벌꿀 제품 내 사양꿀 표시 기준 강화

- 식약청, 식품규격기준 변동 없이 자율 표시 확대 실시
- 차후 벌꿀의 정의 변경 및 품질 차별화 방안 마련

벌꿀품질 강화를 위해 사양꿀 표시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그러나 식품규격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식약청 기술민원상담실에서 벌꿀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양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양봉협회와 한국토봉협회, 농협중앙회,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는 사양꿀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

양봉협회는 고의적인 사양꿀 생산업자를 제외한 양봉업 과정에서 나오는 사양꿀에 대해 영양정보 및 생산과정, 식생활 활용 등 각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천연꿀과 가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봉협회에서는 사양꿀 생산업자는 일부에 불가한만큼 사양꿀 표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농협 양봉담당자는 사양꿀 생산자를 범죄자라며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해 입장차를 보였다. 식약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양꿀을 구분해오던 탄소동위원소 검사법은 무설탕을 먹인 제품은 구별을 못하는 등 공인 검사법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 식품규격기준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차후에 생산 단체만 별도로 소집하여 사양꿀 표시안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일단 탄소검사에서 사양꿀로 밝혀진 제품은 무조건 사양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대로 표시가 안될 경우 언론에 관련업체를 공개하는 등 규제를 할 방침이다.

무설탕 문제는 사탕무 수입부터 시작해 사용처를 추적하여 벌꿀에 사용했을 경우 언론에 공개, 제제를 가할 계획이다.

양봉협회는 "언론의 단골메뉴로 주장하는 사양꿀 문제를 이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때"라며 자조금을 통해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사양꿀 표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